

한국민주화운동의 국제적 위상

지난 17일(목)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는 ‘한국민주화운동의 전개와 국제적 위상-독재와 항쟁, 그리고 민주발전의 동학’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 ‘한국 민주화운동의 국제적 비교’ ‘한국 민주화운동의 국제적 위상과 과제’의 총3부로 구성, 진행되었으며 아침부터 200여석의 회의장 가득 차, 한국 민주화운동에 관한 국제적 심포지엄에 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1부 순서 중에는 입국이 무산된 송두율 교수의 원고 ‘분단과 민주화의 변증법’을 사회자 강정구 교수가 요약 발표하였고 뒤이어 송교수와 동행 귀국하려했던 베르닝 박사가 송교수 입국무산과 관련해 경계선을 걷는 쓰라린 경험 (Bitter Experiences of Walking the Borderlines)이란 개인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전 10시 쯤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김진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분단 반세기과 민주화운동’ 기조발제 후, 제1부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 제2부 ‘한국 민주화운동의 국제적 비교’에 이어 3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진균 교수는 그동안 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과를 “분단반세기와 민주화운동”에서 ‘분단 반세기만에 통일을 제외하고는 민주와 진보를 향한 역사적 대장정에서 한국은 이제 큰 장애를 걷어냈다’고 평가한 후, 그 주체는 6월 항쟁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자, 농민과 빈민, 학생, 그리고 지식인의 출현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는 80년대 큰 범주의 주체와는 달리 그 아래 여러 범주의 ‘주체’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소수’적인 양태이지만 존재양식의 획득을 위해 독자적이고 필요한 사회적 요건을 주창하기 시작하였다고 분석한

다. 이와 더불어 IMF관리체제에 의한 구조조정, 남북한 사이의 다양한 교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가 통일과제와 함께 한국 민주화운동에 부여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새로운 주체 즉 ‘네티즌’의 등장이다. 근대 민족국가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분명하고 지속적이며, 이들은 민주화운동에서도 사회전반에 중심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그 중심적 가치의 새로운 형성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네티즌은 단일한 주체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수시로 전환되기도 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잠동사니로 존재할 수 있음으로써 사이버세계에서 여러 주체로 활동할 수 있으며, 민주화운동의 작은 주체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구화시대에 이들은 큰 주체들과 함께 그들 존재 영역을 자주적이고 집단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남북한의 민족통합을 위한 민족국가형태와 민중들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 패권과 경제적 착취가 배제된 상자이생(相資以生)의 길을 뚫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국대 강정구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 1부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은 계명대 이종오교수의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 이념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신대 윤상철교수의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와 민주화운동”, 성공회대 김동춘교수의 “한국 민주화와 주도세력”, 독일 뮌스터대 송두율교수의 “분단과 민주화의 변증법”, 등 4편의 논문이 제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송두율교수의 논문은 사회자인 강정구교수의 요약발표가 있었다. 토론에는 동아대 차성수 교수, 상지대 정대효교수, 한림대 유팔무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민주화를 이루었으나 민주주의에 이르지 못한 한국 민주화운동의 발전과 전개과정을 이념적 측면에서 고찰한 이종오교수는 한국 민주화운동을 1987년 6월항쟁을 기점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1차적으로 1960-1987년의 기간에 이루어진 한국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 민족민주운동, 민중운동, 민족해방운동, 통일운동 등 다양한 명칭과 개념으로 통용되듯이 자유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념적 지향성을 지닌 사회세력의 연합운동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점에서 당시의 민주화운동은 단일한 이념적, 이념적 구조 하에서 진행된 역사상의 다른 사회운동과는 구별된다고 평가한다. 1987년 이후 민주화 이행과정은 여타 세계의 민주화 경험과 비교할 때, 시간적으로 매우 완만하고 방법적으로 매우 온건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그 성과는 민주화운동의 국민적 정치세력화의 실패, 실질적 민주화 이행과정 시작 이전의 민주화운동 초기 퇴장, 구 정치세력의 지역주의 동원, 의회 및 정당민주주의의 파행 운영 등으로,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 완성이나 성공적 이행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불안정하며, 대선의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민주화이행과정을 중심으로 정치지형의 변화와 민주화운동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윤상철교수는 한국사회가 민주화 이행과 민주적 공고화의 시기를 거쳐 민주적 심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행과 공고화기에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제도화, 그리고 안정적 운영의 문제가 중요하였다면, 심화의 단계에서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장과 사회적 민주주의의 심화, 그리고 그 제도화가 중시된다. 이는 비단 정치세력 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 간의 경쟁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며, 이러한 민주적 심화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은 그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전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치적 집권세력이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의 정치전망은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경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구 지배연합 분파와 분리된 현 지배블록은 지속적으로 동요와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은 정치체의 전반적인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는 정치적 지지기반의 약화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수행능력의 약화, 집권세력 내부의 부패 및 국민적 좌절에 의해 통치력 약화, 국가에 대한 정치사회의 영향력 증가에 의해 민주적 집권세력의 체제수행능력 잠식,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화와 내적 분열 등이라는 것이다.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역할, 이들의 역할 정도와 민주화에 미친 결과, 이와 함께 한국 민주화의 계급세력적 성격을 고찰한 김동춘 교수는, 87년 이전까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온 사회적 힘은 이해관계의 결집력보다는 무정형의 불만을 동원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주도세력의 ‘도덕적 힘’에 상당부분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87년 이후 정치적 힘의

원천이 된 '사회적 힘'의 조성과정에서 사회적 균열 선 중에서 지역 간의 균열, 지역 내의 유대는 계급적 균열/유대를 압도했으며,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은 모두가 이러한 지역주의라는 사회적 힘의 포로가 되었다고 진단하였다.

분단구조와 민주화과정의 상호관련성을 통시적(通時的)이고 공시적(共時的)인 측면에서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러한 상호관련성이 남쪽사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를 고찰한 송두윤교수는, <분단>이 갖는 문제의 복잡성이 하나의 요소로 환원하기에는 무리이나, 수없이 많은 요소들을 가능성의 영역 안에 제한하려는 체제가 본질적으로 지니는 이른바 <복잡성의 환원> 때문에 선택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분단>이라는 경험공간 속에 갇혀 시는 제한성 때문에 불완전한 선택을 하겠지만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흡사 업(業)이 숙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도덕적 행위를 권하는 적극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분단>이라는 우리 민족이 걸머진 업도 분단극복을 위한 행위주체의 적극성을 발양(發揚)시킬 수 있으며, 오늘 한반도의 내부적 조건과 주변상황은 남북민중에게 분단을 넘어 삶의 새로운 관계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귀중한 전화의 계기도 마련해주고 있다고 전망했다.

서강대 손호철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 2부 "민주화운동의 국제적 비교"는, 창원대 조효래교수의 "스페인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역할-사회적 합의의 형성과 붕괴, 복원?", 멕시코 엔리케 발렌시아 교수의 "Disenchantment to confront, Democracies to consolidate", 타이 슈리차이 교수의 "Demo

cratization Movements in Thailand with reference to South Korea and Asia" 등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토론에는 전북대 송기도교수, 세종연구소 이성형박사, 성공회대 박은홍교수가 참여하였다.

조효래교수는, 스페인의 사례를 통해 민주화 이행과 합의의 정치, 민주적 공고화와 경제개혁이라는 두 시기에 걸쳐 노동운동의 역할과 노동정치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민주화 이행이 '합의의 정치'로 표현되는 정치 우위의 시기였다면, 민주적 공고화의 과정은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싸고 경제적 쟁점이 전면화된 시

기였다고 평가한다. 한국의 민주화가 이미 민주적 공고화의 문턱을 넘어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관계, 민주체제의 효율성을 위한 경제개혁의 비용분담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정치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영역이기 때문이다. 내전의 경험과 급속한 산업화,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와 취약한 시민사회, 권위주의체제의 성공에서 비롯된 타협적 민주화, 민주적 공고화로의 점진적 발전, 축적체제의 한계와 경제위기,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통한 체제의 효율성 제고, 이

과정에서 국가와 노동의 충돌 등 민주화 이행과 민주적 공고화과정에서 쟁점들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역사적 경험이 비슷한 스페인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것이다.

한국과 멕시코의 민주화 이행과정을 비교분석한 발렌시아 교수는, 1980년대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라는 동일한 정치적 경험을 겪었으며, 최근 집권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유사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80년대 변화를 시작한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과 한국은 3-5년 동안 민주적 이행과 관련한 정치적, 사회적 경험을 겪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민주적 이행과정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급격한 파괴가 없었으며, 국가개혁은 제한적이었고, 대통령 중심제가 유지되었으며,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었다는 점 등이 유사한 점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멕시코에서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민주적 이행이 진행되었다면 한국에서는 경제성장과 호경기의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민주화운동이 타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한 슈리차이교수는, 이승만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했지만 다시 군사쿠데타로 무산된 4월혁명이 1970년대 타이의 학생운동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1973년 장기군사독재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한 학생운동세력의 중심인 '타이학생연맹(Federation of Students of Thailand)'은 그 다음해인 1974년에 4.19의 성공과 좌절을 소개하는 책자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타이의 민주화운동도 1976년 공식적 통제로만 77명이 숨지고 4,000여 명이 체포·구금되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1980년 광주민중항쟁도 타이의 민주화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1976년 군부 쿠데타에 의해 발생한 타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과 참상은 오랫동안 언론의 금기사항이었는데, 80년 일어난 광주항쟁은 언론이 권력에 대한 민중의 분노와 정권의 무자비한 폭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다.

고려대 최장집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 3부 "한국 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의의와 과제"는, 성공회대 조희연교수가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보편사적 의

의와 남겨진 과제들"을 발표하였고, 토론에는 국내 의 학자 10명이 참여하였다.

한국 민주화운동 혹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성격과 의의, 그리고 현단계의 과제를 분석한 조희연 교수는, 한국민주화운동의 특성을 제시하고, 한국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미국 헤게모니 체제 하의 반공개발독재에 대한 선도적인 투쟁이었음을 밝히고, 동시에 근대 이후 인류사적 의미를 갖는 민주주의 실현 투쟁의 전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민주화운동의 보편사적 의의를 조명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전후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성



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던 반공주의-개발주의적 권위주의정권의 현장에서 그것에 대항하여 선도적인 전투적 저항을 보임으로써 전후체제의 균열을 가속화시킨 의의를 갖는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국가수준에서 국가폭력성에 대항하는 투쟁의 성격을 띠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내용들을 확장하고 민중들의 권리와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투쟁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근대 이후의 보편적인 민주주의 투쟁의 한 사례였다는 것이다. 그

리고 이행과정에 남겨진 과제로 구 권위주의체제의 민주적 개혁, 과거청산을 둘러싼 투쟁에서의 선도성,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확립을 향한 동력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발제 및 토론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계급적 성격, 민주적 이행 및 공고화의 시기문제, 민주화운동의 과제 등이었다. 특히 민주화운동에 남겨진 과제와 관련한 종합토론에서는 과거청산문제, 정치개혁문제, 경제적 분배의 문제 등과 2002년 대통령선거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다.